

새정치, 7·30 재·보선 공천 ‘파워게임’

주류·비주류, 친노·비노, 안철수계·구민주계 등 역학구도 복잡

광주·전남지역 2곳 전략공천 대신 경선으로 후보 선출 움직임

7·30 재보선 공천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의 ‘파워 게임’이 시작됐다.

주류와 비주류, 친노와 비노, 안철수 공동대표 세력과 구 민주계 등이 복잡하게 얽힌 역학구도 속에 고자원의 ‘공천 방정식’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재보선의 경우, 전략공천 보다는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어 주목된다.

일단, 당내에서는 손학규·정동영 상임고문, 천정배 전 법무장관, 김두관 전 경남지사 등 한동안 당내에서 비켜져 있던 ‘잡룡’들이 최대 격전지로 부상한 서울과 수도권 재보선 지역구에 자천타천으로 이름을 올리며 서서히 몸 풀기에 들어갔다.

이처럼 거물들의 귀환이 가시화되면서 이번 재보선은 당내의 당권 및 대권 경쟁 전초전 양상마저 띠고 있다.

여기에 맞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금대섭 공동대변인을 비롯한 안철수 대표 측 세력과 박광온·박용진 대변인 등 신주류 측 주자들도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핵심 지지 기반인 광주 광산,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의 재보선 지역구에서는 김효석 전 의원을 필두로 당 내외 인사들의 물 밀 행보도 뜨겁다.

특히 광주시장 후보 전략공천에 따른 강력한 후폭풍에 시달렸던 지도부는 이번 광주·전남지역 재보선에서는 경선을 원칙으

로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안철수 공동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번 광주·전남지역 재보선에서 ‘낙하산 공천’은 안 된다는 것이 내부 흐름”이라며 “변화를 상징할 수 있는 신진 인사들과 경륜이 검증된 인사들을 대상으로 경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의 강력한 경쟁이 불가피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전략공천이, 공천이 끝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호남 지역에서는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당내 거물급 인사들의 ‘등판’이 현실화된다면 이들의 ‘생환’ 여부에 따라 당

내 세력 판도와 대선 구도도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가 ‘재선 효과’를 등에 업고 당내 유력 대선 주자로 부상한 가운데 재보선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구도가 ‘춘추 전국시대’의 다자 구도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등 신주류와 긴장관계를 형성했던 손학규 고문과 중립적 입장을 취했던 김두관 고문, 전신주류 성향인 정동영 고문과 천정배 전 장관의 재보선 출마와 그 결과에 따라 당내 역학구도와 대선구도가 출렁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재보선 결과에 따라 안철수 공동대표와 문재인 의원의 입지와 위상변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계 관계자는 “재보선 공천 및 성적표가 차기 당권 경쟁과 대권 경쟁 구도 재편 등 향후 야권의 지형 변화를 좌우할 ‘태풍의 핵’으로 떠오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제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첫 주례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후반기 院구성 지연

상임위 가동 싸고 대립

야당 몫 상임위원장 인선 주목

여야는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이틀 앞둔 9일까지도 후반기 院(院) 구성 논의의 접점을 찾지 못해 국회 공전의 우려마저 낳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야당 몫 국회 상임위원장 인선을 놓고 막판 고민에 들어간 가운데 박주선 의원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김동철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인선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9일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진행한 4차 회동에서 대정부질문 일정을 확정할 것 외에는 별다른 합의사항을 도출하지 못했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포함한 후반기 상임위 가동 문제가 주요 의제로 올랐으나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 사항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제기한 정보위원회의 전임 상임위화, 예산결산특별위의 상임위화, 상임위법 법안심사소위의 복수 개설 등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난색을 표하면서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정보위나 예결위의 일반 상임위화 문제는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19대 국회 후반기에 곧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원 구성과 정보위, 예결위의 상임위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몫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자리를 놓고 막판 경쟁이 치열하다. 교문위원장은 박주선의 의원과 설훈의원이 경쟁하고 있고 산자위원장은 김동철 의원과 노영민 의원이 충돌하고 있다.

그동안 선거 때만 되면 호남의 회생과 지원을 요청해왔던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호남의 발전을 이끄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임위원장 선정을 놓고 어떠한 판단을 내릴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지역 정관계 인사들은 “광주·전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회 교문위원장과 산자위원장에 지역 의원들이 선임돼야 한다”며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줄 차례”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세월호 국조 특위 ‘표류’

여야 간사 기관 보고 일정 등 합의 실패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9일 오후 여야 간사 접촉을 갖고 국조 대상기관 보고 등 향후 일정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위는 전날 공동 선언문까지 발표하며 진상조사에 적극성을 보였으나 상대방에 대한 불신의 벽을 넘지 못한 채 10여 분 만에 회동이 결렬됐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국정조사와 7·30 재보권선거를 연계하려 한다며 기관보고 일정을 앞당겨 이달 중에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국정조사 일정을 당겨서 16일부터(12일간) 하는 게 좋겠다”며 “7월로 넘어가면 국조가 정쟁에 잘못 이용될 수 있어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이처럼 중대하고 여러 부처가 관계된 국조를 하면서 예비조사 기간을 1개월 이상 두지 않는 건 부실화 우려가 있다”면서 “(오는 13일부터) 국민의 관심이 월드컵에 쏠린 상황에서 비락치기로 기관보고를 받는 건 유가족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맞섰다.

또 김 의원은 오는 18~20일 국회 대정

부질문이 예정돼 있고, 6월에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여야간 합의가 있었던 만큼 이를 고려하면 내달 14일부터 26일까지 기관보고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여야 간사는 회동을 비공개로 전환했으나 5분도 채 안 돼 협상장은 나온 뒤 국회 정론관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일정 조율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 돌렸다.

조 의원은 “세월호 참사 내용에 대해 종합적인 기관보고를 먼저 받고 난 후 문제점이 있으면 추가 기관보고를 받거나 청문회를 통해 밝히면 되는 것”이라며 “기관보고 일정을 잡지 않으면 예비조사팀 구성이나 여러 소위 구성 절차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라고 못박았다.

반면에 김 의원은 “예비조사팀도 꾸리고 특위 내부에 소위원회도 구성해야 하는데 전혀 논의되지 못했다”면서 “새누리당 요구에 따라 되지는 못했지만 7·30 재·보선 이후 합의하겠다는데 이제 와 선거를 이유로 7월에 기관보고를 못받겠다고 하는 것은 국조를 파행시켜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완구 “세월호 후속조치 시급”

박영선 “용광로 국회 만들어야”

여야 원내대표 첫 주례회동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 사랑제에서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과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첫 주례회담을 했다.

이날 회동은 “매주 월요일 정례적으로 만나자”는 박 원내대표의 제안에 이완구 원내대표가 “빨리 만나자”고 화답하면서 이뤄졌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회담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면서 “국가대개조, 세월호 유가족(지원) 문제, 정부조직 문제, 판피아 문제, 김영란법, 유방안법 등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사안이 대단히 시급하다”면서 “심도 있고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통해서 국회에서 빨리 이런저런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나 김한길 공동대표가 관심을 갖고 계신 정보위

나 예결위의 일반 상임화 문제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외국사레나 정부 측 입장을 들어보아야겠지만 일단 논의 자체는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께서 이번 6·4 지방선거를 통해 이제 사람중심, 사회통합, 균형과 견제, 국민안전 등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국회가 이런 국민의 명령에 즉시 응답을 해서 현안을 풀어갈 수 있는 ‘용광로 국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원내대표 간 주례회담에 대해 “매주 만나서 논의하는 것은 대단히 생산적이고 진일보한 국회 운영을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담은 앞 부분 공개 후 비공개로 전환했다. 회담에는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
상가분양 및 임대**

**위치/가격/디자인/편리성
넘버원 빌딩!**

한 빛 타 워 지하 1층~지상 8층(분양)
다성드림빌딩 지하 1층~지상 6층(임대)
김 스타 워 지하 1층~지상 5층(분양)

혁신도시 토지, 상가, 아파트
주변토지 다량보유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주식회사 오늘**

분양·임대문의 ☎ 061-333-7077
H. 010-3505-8005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신평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 | 금호지점 | 품암지점

공고 제2014-8호

긴급공사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 녹동농협 정미작장 신축 토목공사.
나. 공사현장 :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안리 1735-2외 2필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월 (건축공사 준공일 이내)

2.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최저가 입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일시 및 장소

구분	현장설명등록마감	현장설명일시	입찰등록 마감	입찰일시
일시	2014.06.12(목) 09:00~11:30	2014.06.12(목) 14:00	2014.06.17(화) 09:00~11:30	2014.06.17(화) 13:30
장소	녹동농협 2층 대회의실	공사 현장	녹동농협 2층 대회의실	녹동농협 2층 대회의실

4. 현장설명 참가 자격.
가. 건설기술관리법령상 토건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 소지자로서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
나. 자격 소지자 본인이 참가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을 제출한 자.

5. 입찰 참가자격 및 제한.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건 공사업 면허를 소유한 업체로서 현장설명에 참가하고 입찰등록을 필한업체.
나. 공고일 현재 정부,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주된 사무소가 전남남도에 소재하는 업체로서 최근 5년 이내에 연면적 7,000㎡ 이상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농수축협업의 공업단지, 택지, 주택단지 등의 조성 실적이 있는 자.

6.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본회(조합)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입찰참가 등록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농협에 귀속됨(변제사항 없음)

7. 독.입찰의 무효 : 공사입찰유서서 및 본 조합 계약규정에 의한.

8.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단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자의 부채·유동부채를 평가하여, 평가결과 부채 비율은 업종평균비율 이하이고 유동비율은 업종평균비율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함.

9. 구비서류

현장 설명 시	입찰 등록 시	입찰 시
①당해 공사 기술자 기술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원본제시) 사본 1부 ②현장설명 참가자 도장 (신분증제시) ③제직증명서 및 위임장 (대리인 참가자) ④공사실적 증명서 (해당기관 발행 원본) ⑤경영상태확인서 (해당기관 발행원본) 1부·인터넷 발급 원본 포함 ※최근 6개월 이내 발행	①입찰참가 신청서 1부 ②당해 공사업 등록증 및 수첩사본 1부 ③법인등기부등본1부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④인감증명서 1부 ⑤사용인감계 1부(입찰참가 신청서 양식 이음) ⑥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⑦입찰보증금 ⑧국세 및 지방세납부증명서	①입찰참가자 신분증 및 사용인감 ②제직증명서 및 위임장(입찰참가 신청서 양식 이음 이외의 자가 입찰참가시 해당됨)

※사본 제출시 “원본과 같음” 표시 후 인감 날인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 전에 입찰 공고사항, 입찰유서서, 계약일반조건, 시방서, 설계도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농협의 청렴이행각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에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에 필요한 제반서류는 녹동농협 총무과에 비치하고 있으나 2014년 6월 16일까지 열람하지가 바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061-8401-7713(담당자 : 임정임)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4년 6월 9일
녹동농협 협동조합장